가톨릭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문제지【논술우수자 전형】 (문과)

지원학부(과) :　　이 름 :　　수험번호 :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생의 신원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하지 마시오.

▶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1과 문항 2 각각,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 각 40점)

[문항 1] (가)는 1980년대의 이야기이고 (나)는 2013년 현재의 상황이다. 갈등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문항 2] (라)와 (마)를 활용하면서 (다)의 '보편적 디자인'이 추구하는 정신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갈등에 대한 해결의 방향을 논술하시오.

(가)

① 팔순을 넘긴 김반장 할머니는 꼬부라진 허리를 아랑곳 않고 추위를 피해 종종걸음 치는 아낙네들 뒤를 따라가면서까지 외워댔다.

"우리 것도 팔아주랑게……."

참말로 딱하게 된 것은 원미동 여자들이었다. 이제까지 대놓고 쓰던 경호네를 나 몰라라 하고 김반장한테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 김포슈퍼 개업일 때 무심코 던진 말들을 기억하고 있는 탓이었다.

"모쪼록 잊지 말고 들러주십시오.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허리 굽혀 인사하면서 은박지 쟁반에 담긴 팥떡을 나누어주던 경호네한테 누구라 할 것 없이 덕담처럼 던진 말이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쌀 안 먹고 연탄 안 때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경호네를 잊고 살 수는 없지."

딱히 그것뿐이라면 또 모른다. 듣기 좋은 말만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므로 그깟 덕담쯤이야 인사치레로 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포슈퍼에 들를 때마다 은근히 얹어주던 덤이며, 찾아줘서 고맙다고 손에 쥐어주던 빨랫비누 한 장씩을 누구라도 한 번씩은 받게 마련이었으므로 입 싹 씻고 돌아서기가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다.

일이 이쯤에 이르자 김반장이 쌀과 연탄을 벌인 게 잘못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애초에 김포슈퍼로 가게를 확장한 경호네가 잘못이라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② 이야기의 중심에는 형제슈퍼 김반장이 놓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네 명의 어린 동생과 다리 골절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와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 또한 팔순의 할머니가 매달려 있습니다. 스물여덟 살의 이 싹싹한 총각은 원미동 23통 5반의 잡다한 사건을 내 일처럼 챙기는 사람입니다. 김반장과 대립하는 사람은 김포슈퍼의 경호 아버지지요. 그는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상경한 후 품팔이로 번 돈을 모아 김포쌀상회를 차렸고, 곧 김포슈퍼로 이름을 고쳐 확장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물건을 싸게 팔던 두 사람 앞에 '싱싱청과물'이 나타납니다. 가게 셋이 경쟁을 벌이게 되자 김반장과 경호 아버지는 동맹을 맺습니다. 협공을 당한 싱싱청과물은 텃세를 견디지 못하고 가게문을 닫고 말지요.

(나)

2000년대에 들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지배력은 꾸준히 커져 왔다. 그에 반해 주거지 근처의 작은 가게들로 이루어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축소와 쇠퇴의 길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마침내 정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업 일수와 영업시간을 강제로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전통시장 매출이 어느 정도 증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들린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업규제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이 편의점이고 그 때문에 구멍가게는 오히려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부의 영업규제가 편의점은 살리고 구멍가게는 죽이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디자인은 보통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디자인은 특정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기업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 집단이 요구하는 기능과 좋아할 만한 스타일에 대해 방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나온 디자인은 그 집단에게는 만족감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

보편적 디자인은 노약자나 장애인처럼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디자인을 말한다. 보편적 디자인은 처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더 보편적인 의미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그 적용범위도 개인이 사용하는 도구나 물건을 넘어서서 공공시설 같은 환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보편적 디자인은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노인이거나 어린이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라)

문화접변에 의한 문화변동의 양상은 변동의 정도에 따라 문화공존, 문화동화, 문화융합의 세 유형으로 나타난다.

문화공존은 문화병존이라고도 한다. 새로운 문화요소와 기존의 문화요소가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잃지 않고 한 사회의 문화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두 문화요소의 충돌 없이 함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 내부에 다양한 종교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나, 화교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문화동화는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체계 속에 흡수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 정복활동을 하던 국가들이 식민지의 문화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한 것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미국문화에 흡수된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 밖에 대부분의 문화접변은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문화의 선택적 수용이나 재해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문화융합이라 한다.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온돌문화가 서양식 침대문화를 만나 돌침대문화를 만든 것이나, 인도 양식과 헬레니즘문화가 결합하여 간다라 양식이 만들어진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

생물들은 자신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 조건에 알맞도록 몸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중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을 적응이라 하고 유전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것을 순응이라 한다. 예를 들어 선인장에 저수 조직이 발달한 것과 잎이 가시로 변한 것은 사막과 같은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예이며 민들레의 뿌리가 저지대에서 자랄 때와 고지대에서 자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수분 확보를 위해 순응한 예이다.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동일한 장소에서 서식할 경우 이들 간에는 한정된 먹이 또는 공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의 결과 한쪽 개체군만 살아남고 나머지 개체군은 함께 살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경쟁 배타의 원리라 한다.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 종의 짚신벌레가 함께 살기도 하는데 이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생활할 때 생활 공간이나 먹이, 활동시간 등을 달리하여 경쟁을 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분서라 한다. 분서의 방식에는 같은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생활공간을 달리하는 서식지 분리와 서로 다른 먹이를 먹는 먹이 분리가 있다. 예를 들어 피라미와 갈겨니가 같은 냇물에 사는 경우 갈겨니는 냇물의 가장자리에, 피라미는 냇물의 중앙부에 살면서 서로 경쟁을 피한다. 또 피라미는 은어가 없는 냇물에서는 조류를 먹지만, 은어와 함께 살게 되면 은어가 주로 조류를 먹고 조류를 먹던 파라미는 먹이를 바꾸어 수서곤충을 잡아먹게 된다.